



9·11 테러후 플렉소인쇄 급증

최근 미국에서는 플렉소인쇄업계의 발전을 위해 기존의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의 발굴을 목적으로 한 ‘플렉소 컨소시엄’이 만들어져 혁신적 마케팅 기법을 채용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플렉소업계와 각 개별기업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뿐만 아니라 많은 시장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

다가 플렉소의 이점이나 가치를 이해시켜 주기 위해, 디자이너나 관련업계, 기업에 대해 국내 패키지 관련 잡지를 통해 플렉소로 인쇄한 전단을 넣거나 연포장 관련 잡지에도 플렉소인쇄의 선두기업이 선전활동을 전개해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플렉소 컨트리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미국시장에서는 연포장이나 골판지, 제대분야에서는 <표1>과 같이 이미 플렉소인쇄가 선점 상태에 있어 업계에 있어서 새로운 수요의 창출이 필요해진 것이다.

한편, 미국플렉소기술협회(FTA)는 기술적 측면에서 컨소시엄의 시장 확충 활동을 지원해 양자간의 팀워크가 유지되고 있다.

최근 미국 내에서 경제정세의 변화로 소폭의 플렉소인쇄사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특히 의약품이나 화장품분야에서 성분표시나 정보를 알려주는 새로운 라벨링을 FDA(미국식품의약품국)가 훈령을 낸 일에 대처하기 위해 ‘Peal and Seal’ 라벨이나 ‘Look and Read’ 라벨의 개발 등 많은 새로운 특수 플렉소인쇄가 그 유리한 점을 살려 작은 사이즈의 플렉소인쇄를 성공으로 이끌고 있다.

또 세계적인 규모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많은 기업은, 변조방지나 위조방지 기능을 가진 포장재의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분야에도 플렉소인쇄, 특히 작은 사이즈의 플렉소인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한편, 미국시장에서는 봉투용도로 플렉소인쇄가 보급되고 있다.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테러와 아울러 우편물의 탄저균 사고가 일어났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봉투인쇄의 수요가 생겨났다. 예를 들면 콘솔리데이트 그래픽사에서는 인쇄잉크나 코

팅제에 항 미생물(세균)제를 도입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봉투인쇄물을 개발했다. 또 봉투인쇄물에 세균과 반응하는 센서물질을 넣어 우체국에서 분리수집 할 때 센서에 의해 검출하는 계획을 우정국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플렉소시스템 인프라 확충

<표1> 용도별 플렉소인쇄시장 (단위 : %)

| 용도별 | 1996년 | 2000년 |
|-----|-------|-------|
| 라벨 | 20 | 40 |
| 카톤 | 20 | 40 |
| 연포장 | 75 | 85 |
| 골판지 | 75 | 80 |
| 제대 | 95 | 95 |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의 플렉소인쇄의 용도는 광범위하며, 포장인쇄분야에서는 이미 오프셋을 제치고 제일 많다.(플렉소 72%, 오프셋 13%)

앞으로의 마켓트렌드로서 <표1>에 나타낸듯이 카톤지기분야는 오프셋인쇄에서 플렉소인쇄로 옮겨짐과 동시에 라벨인쇄(협폭 플렉소)도 전술한 바와 같이 새로운 시장의 변화에 따라 더욱 더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시장은 패키지에 대해서는 합리성

미국은 포장인쇄에서는 ‘플렉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어, 일본에서는 보급되어 있지 않는 분야도 미국 플렉소시장에는 다수 존재하고 있다. 플렉소인쇄분야에서 가장 시장이 큰 것은 골판지(포스트프린트 및 프리프린트 포함) 인쇄로 플렉소인쇄시장 전체의 24%(금액 약 290억 달러)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신장성이 높은 분야로써 연포장이 약 24%(204억 달러)로 연간 3.5~4% 신장하고 있으며, 카톤지기가 약 19.3%(165억 달러)로 앞으로 더욱 더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과 간편성, 그리고 저가격화 지향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심플하고 저가격의 패키지를 생산하는 수단으로서 플렉소인쇄가 보급되고 있다.

이렇게 미국시장은 포장인쇄에 관해서만 놓고 보면 ‘플렉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어, 일본의 플렉소시장에서는 보급되어 있지 않는 분야도 미국 플렉소시장에는 다수 존재하고 있다.

플렉소인쇄분야에서 가장 시장이 큰 것은 골판지(포스트프린트 및 프리프린트 포함) 인쇄로 플렉소인쇄시장 전체의 24%(금액 약 290억 달러)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신장성이 높은 분야로서 연포장이 약 24%(204억 달러)로 연간 3.5~4% 신장하고 있으며, 카톤지기가 약 19.3%(165억 달러)로 앞으로 더욱 더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FTA(미국 플렉소기술협회)가 2002년

시장)에서의 수성 플렉소인쇄가 기존의 활판인쇄로부터 옮겨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플렉소 포럼 연차대회(FTA 주최)가 대규모로 전 미국 각지에서 개최되며, 또한 교육훈련의 장이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정상화되고 있어 플렉소시스템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충분히 갖춰지고 있다.

계다가 플렉소인쇄기메이커나 주변기기 메이커도 많고, 각 기업마다 사용자들의 지원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FTA에서는 정기 간행물로서 잡지 'Flexo'를 거의 매월 발행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기술서적인 'Flexography. Principles and Practice'를 1962년에 초판 발행한 후, 계속적으로 개정판을 내놔 1999년에 제5판이 출판되었다.

그 외에 교육, 훈련용 각종 키드(VTR, CD-ROM 등)도 준비되어 있으며, 최근에

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플렉소업계 성장률은 앞으로도 연간 4~5% 신장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또한 인쇄 잉크시장의 수급동향을 보더라도 플렉소의 신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2). 앞으로 인쇄잉크의 전체 평균을 상회해 신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플렉소잉크와 디지털기기용 잉크라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앞으로도 연포장과 메일링 라벨, 신문 및 페이퍼타월분야가 신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잉크 수요의 90% 가 포장인쇄이다.

예를 들면 신문인쇄(출판

개발한 'FlexoSys'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라벨(소폭), 중간 및 광폭 플렉소패키지, 골판지의 여러 가지 플렉소인쇄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오퍼레이터 등의 훈련시스템으로서 유효한 프로그램이다.

〈표2〉 미국의 인쇄잉크 수요

(단위 : 100만 달러)

| 인쇄잉크 전체 | 1989년 | 1999년 | 2004년 | 성장률(04/99 대비) |
|----------|-------|-------|-------|---------------|
| 합 계 | 2,677 | 4,455 | 5,640 | 4.8 |
| 오프셋 잉크 | 1,275 | 1,960 | 2,405 | 4.2 |
| 플렉소 잉크 | 530 | 960 | 1,250 | 5.4 |
| 그라비어 잉크 | 485 | 765 | 930 | 4.0 |
| 레터프레스 잉크 | 155 | 131 | 115 | -2.6 |
| 디지털 잉크 | 42 | 175 | 290 | 10.6 |
| 기 타 | 190 | 464 | 650 | 7.0 |

